

조선후기 지방 기우제의 시행과 의미

- 안동부사 金嘉鎭의 『祈雨日記』를 중심으로 -

하 서 정*

- I. 머리말
- II. 東農 金嘉鎭과 『祈雨日記』
- III. 1892년 안동 祈雨祭의 과정과 절차
- IV. 지방관의 역할과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892년 東農 金嘉鎭(1846~1922)이 安東大都護府使시절 지냈던 祈雨祭를, 『東農家藏文書』에 남아있는 『祈雨日記』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기우일기』는 기우제를 지내는 당시에 掌議로 있었던 金奉鎭에 의해서 작성된 기록물로, 조선후기 지방관이 주체가 되어 거행되었던 지방 기우제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가뭄은 농사를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전통시대 국가와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하였다. 그 가운데 기우제는 의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플러스 글로컬 역사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 / hsj9131@naver.com

김가진은 1891년에 안동부사로 부임하였는데, 1892년 6월에 가뭄이 발생하자 기우제를 지냈다. 당시 안동의 기우제는 1892년 6월 14일부터 윤 6월 2일까지 20여 일 동안 모두 아홉 차례로 지내졌다. 그 장소는 예부터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으로 설정되었다. 지방에서의 기우제는 중앙에서 지낸 기우제에 비해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지방이라는 특수성과, 예부터 내려져 오는 전통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지방관은 각 지방의 행정 및 民事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祭主로서 제사를 주관하였다. 지방관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기우제를 주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自責과 對民의 역할까지도 도맡았다. 이는 조선후기 지방관이 지낸 기우제가 중앙의 권위를 빌려 거행됨으로써 災異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鄉民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 주제어

기우제, 의례, 지방관, 김가진, 기우일기, 가뭄, 지방의례, 안동

I. 머리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古今을 막론하고 항상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은 전통시대에서 자연재해가 민감하게 여겨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가운데 가뭄[旱災]은 다른 자연재해와 비교하였을 때도 농사와 곧바로 이어지는 현상이었고, 가뭄과 다른 재해가 중첩하여 발생했을 경우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곤 하였다. 또한 농사를 삶의 근원으로 여겼던 백성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피해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요와도 크게 연관되었다.

가뭄은 다른 재해와 마찬가지로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각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관련된 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각각 고안하였는데, 祈雨祭는 그 중 의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기후제는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제사였으므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왔다.

조선은 건국 직후, 前朝까지 존재해오던 여러 의례를 유교식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 祀典이 정비됨에 따라 각 지방의 기후제는 국가에서 공인한 것만 지방관을 통해서 지내는 것으로 정비되었다.¹⁾ 기후제를 포함한 불교·도교식 및 주술적인 각종 의례들은 모두 淫祀로 간주되어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모든 祭儀를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뭄이 심할 때는 관의 목인 아래에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행해진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²⁾

1) 조선시대 기후제 정비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이옥,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2002; 최중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7; 이옥,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2) 민속적[주술적]인 특징을 지니는 마을 기후제[민속학]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임장혁, 『기우제와 지역사회』, 민속원, 1999; 이기태, 「마을기우제의 구조와 사회통합적 성격」, 『민속학연구』 46-1, 2007;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

國行 기우제는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지내졌다. 중앙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國王 및 王世子, 大臣이 祭主가 되었으며, 祭處 역시 규정되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관이 중앙의 명을 받아서 대리자로서 제주의 임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지방관은 중앙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지방에 파견되어 각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 및 民事를 담당하였다. 그들은 중앙에 있는 국왕이나 관인보다 백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지방관은 중앙과, 지방에 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기능하면서 중앙의 권위를 빌려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교화하고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지방관이 지내는 기우제 역시 자연재해의 해결책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對民의 역할도 하였다.

중앙에서 지낸 기우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이것은 기우제가 가지는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인데, 대체로 역사학 · 사회학 · 민속학 ·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다뤄졌다. 그 중에서 조선초기와 후기에 절차와 규정이 정비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에서 치렀던 祈禳儀禮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조선시대 기양의례가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냈다.³⁾

반면, 조선시대 지방관이 국가의 권위를 빌려 기우제 및 다양한 제례를 주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 성과는 부족하다. 이는 지방의 기우제를 기록한 자료가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측면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지낸 기우제는 중앙에서 지낸 기우제보다 백성에게 가까운 곳에서 지내졌으며, 鄉民들을 통합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지방관은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향민들의 民事를 처리하는 거나 그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일 등, 해당 고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신앙],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김기설, 「강릉 고을의 기우제 고찰」, 『강원민속학』28, 2014.

3) 최중성, 앞의 책, 2007; 이욱, 앞의 책, 2009.

기존에 지방관의 기우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吳弘默의 『叢瑣錄』을 통해 영남 지방관의 일상을 살핀 연구를 찾을 수 있다.⁴⁾ 여기에서는 『咸安叢瑣錄』을 활용하여 지방관이 주관한 기우제의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이 논고에서 지방관이 지낸 기우제의는 공무를 수행하는 일상의 의례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인 『총쇄록』은 오형목이 지방관을 지냈을 때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따라서 오형목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특정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총쇄록』의 내용 가운데, 기우제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 분석하여, 기우제 자체에 대해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安東大都護府使를 지냈던 金嘉鎮(1846 ~ 1922)의 기우제가 기록되어 있는 『祈雨日記』를 통해 안동에서 지낸 기우제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⁵⁾ 김가진은 1891년(고종 28)에 안동대도호부사가 되었는데 이듬해 안동지역에 가뭄이 크게 들자 충 아홉 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일기』는 김가진에서 전해지고 있는 『東農家藏文書』에 남아있다. 이 기록물은 당시 김가진이 기우제를 지낼 적에 그를 도왔던 掌議 金奉鎮(? ~ ?)이 작성한 것인데, 김가진이 기우제를 지낸 모든 정황과

4) 오용원, 「기우제의를 통해 본 영남 지방관의 일상과 대민의식」, 『영남학』 16, 2009.

5) 김가진 가에 전해져 오는 『기우일기』는 김가진의 손자인 金滋東이 김가진과 관련된 자료(『東農家藏文書』)와 함께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다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기증하였다. 이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김가진의 자료를 하나로 묶어 『동농 김가진 전집』으로 출간하였다. 『기우일기』는 그 중 『동농 김가진 전집』 2권에 있으며 필사본(원문) 전체가 실려 있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농 김가진 전집』 2, 선인, 2014). 그에 앞서 『기우일기』만 따로 번역·출간되었는데, 안동문화원에서 번역문과 필사본(원문)을 함께 실어 출간하였다(김봉진 편역·김위현 옮김, 『기우일기』, 안동문화원, 2010). 두 원문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11행 28자의 국대판이고 표지를 포함하여 총 5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기후일기』의 원문은 안동문화원의 필사본을 따르며, 출처의 표기는 생략하였다.

과정을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한 일기이다. 여기에는 기우제를 지낸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데 행차의 의절이나 복장, 祭需, 제주의 몸가짐, 祝文 및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모두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되기 어려웠던 지방 기우제의 실태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고, 조선후기 지방에서 지낸 기우제에 담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⁶⁾

김가진의 『기우일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祈雨祭謄錄』 및 『解怪祭謄錄』을 참고하고, 안동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永嘉誌』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II. 東農 金嘉鎭과 『祈雨日記』

1892년 안동의 기우제를 살피기에 앞서, 安東大都護府使(이하 안동부사)로서 당시 기우제의 祭主이었던 東農 金嘉鎭(1846 ~ 1922)과, 해당 기우제가 기록되어 있는 『祈雨日記』에 대해서 살펴보고도록 하겠다.

김가진의 본관은 安東이고 자는 德卿, 호는 東農이며 文忠公 金尙容의 11세손이다. 1846년(현종 12)에 예조판서를 지냈던 金應均(1801 ~ ?)과 함안 박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⁷⁾ 그의 집안은 안동 김씨의 일원으로 壯洞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직자를 배출하였다.

김가진은 1877년(고종 14)에 규장각 검서관으로 벼슬길에 나아갔고, 1886년(고종 23) 文科에 급제하면서 여러 관직을 맡았다. 1891년(고종 28)에는 안동부사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도 農商工部大臣, 法部大臣, 中樞院 의장, 황해도와 충청남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일제 치하에는 朝鮮民族大同團 총재로 활약하였으며 1919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

6) 비록 19세기 말의 자료이나, 전통시대의 의례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후기의 기우제와 절차나 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7) 이하 김가진의 생애는 연보를 참고하였다. (『東農家藏文書』, 年譜)

시정부의 고문으로 활약하다가 1922년에 사망하였다.

이처럼 김가진의 생애는 일제 치하에서의 활약이 강조됨에 따라 비교적 국내에서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⁸⁾ 그러나 『기우일기』를 통해 안동부사 시절 김가진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고, 덧붙여 조선후기 지방에서 지낸 기우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안동부사로 지냈던 시기는 1891년 3월부터 1893년 3월까지인데, 1891년에 3월 22일에 안동부사로 임명되었으나 5월 13일에 판사대신을 겸임하게 되어서 주로 주일본공사의 일을 보게 되었다. 이후 주일본청국공사 李經芳에게 另約三端의 취소를 요구하고 오스트리아 공사와 수호조약 체결을 논의한 뒤에 9월 21일에 귀국하고 난 뒤, 高宗을 알현하고 다시 안동부사로 재임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그가 안동부사로서 안동에서 지냈던 시기는 1891년 9월 말부터 1893년 3월 30일까지로 보인다. 본 자료를 통해 그가 기우제를 지낸 시기가 1892년 6월 17일부터 윤 6월 6일까지로, 20여 일 정도였음이 확인된다.

『祈雨日記』는 필사본이며, 김가진가에서 전해져 오는 『東農家藏文書』에 남겨져 있으며 작성한 사람은 당시 掌儀였던 金奉鎭(? ~ ?)이다. 김봉진은 이 일기에서 장의로서 기우제를 도우면서 김가진이 지낸 기우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사료는 업무일지적인 특징이 큰데, 내용은 기우제를 지낸 순서에 따라서 그간에 있었던 일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나 의식의 순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의 주변인들과의 대화나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의 어려움, 혹은 김가진에 대한 평가 등이 사실적으로 기록된 점이 흥미롭다.

8) 김가진의 활동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현희, 「통일논단 : 한국 근대인물의 재발견: 격동기에 정치역량 보인 동농 김가진」, 『통일한국』48, 1987; 북악사학회편, 『(역사에 비춘)한국 근현대 인물』, 북악사학회, 1995; 吳瑛燮, 「東農 金嘉鎭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한국사상사학』 20, 2003; 潘炳律, 「해외에서의 大同團 조직과 활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28, 2004; 신동준, 『개화와 열전 -김옥균에서 김가진까지』, 푸른역사, 2009; 김위현, 『동농 김가진전』, 학민사, 2009; 남금자, 「대한제국기 김가진의 충주지역 토지 소유와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2017)

또 각 기우제처에서 지은 祭文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제문의 형식이나 그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작성자인 김봉진도 김가진이 작성한 제문 옆에 자신이 쓴 시를 함께 적고 있어 당시 사대부의 문학 활동을 함께 엿볼 수 있다. 『기우일기』를 통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확인되었던 지방관의 기우제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기의 필자는 스스로를 김봉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필체가 두 가지 등장하지만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일기의 주체는 한 사람으로 보이므로, 내용은 김봉진이 홀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

김봉진은 부의 40여리 쯤 떨어진 豊北面 玄厓里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였으며, 김가진의 族弟라고 하였다. 그는 김가진의 아버지 金應均(1801 ~ 1875)이 앞서 안동부사를 역임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하면서 김가진이 안동부사에 부임되어 기쁘다고 하였다.⁹⁾

김봉진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이 掌議로 선발된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당시 향교 임원 중에 결원이 있어서 임원을 보충하는 자리에서 여론에 따라서 장의로 뽑혔다고 하였다. 당시에 버쟁이[法田]에 살고 있던 姜進永이라는 사람이 함께 일을 맡았으나, 그가 服喪인 터라 김봉진이 거의 혼자 일을 했다고 한다. 그 뒤의 내용부터는 기우제를 지내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적고 있으며, 6월 14일의 기록부터 당시 거행된 기우제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Ⅲ. 1892년 안동 祈雨祭의 과정과 절차

1892년 6월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하였다. 경기도의 가뭄은 약간의 비가 내려 쉽게 해소된 듯 하였으나,¹⁰⁾ 호서 지방은 심하게 가뭄어 8 ~

9) 『祈雨日記』, 序文

10) 『承政院日記』冊3022 高宗 29年 6月 10日.

9읍이 계속해서 기후제를 지내고 있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며칠 뒤, 앞서 가뭄이 해소된 듯했던 경기 지역 역시 10일 내로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가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¹¹⁾ 한 달이 지난 윤 6월 25일에는 그동안의 기후제로도 흡족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民弊가 여전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¹²⁾

경상도의 경우에도 당시에 가뭄의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2년 영양에서 살고 있었던 薇陽 吳濟承(1877~1933)이 작성한 『日記』에 당시의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¹³⁾ 1892년 6월 8일의 일기에는 가뭄의 기세가 크게 심해져서 사람들이 망연해[沍沍]하고 있다고 기술하였고,¹⁴⁾ 27일에는 여전히 비가 올 기미가 없었으며, 곡식은 마르고 전답은 갈라졌으니 흉년[殺年]이라고 이를 만 하다고 하였다.¹⁵⁾ 가뭄은 윤 6월 7일에 해소되었다고 하였다.¹⁶⁾

이를 통해 오제승의 『일기』에 기록된 가뭄의 상황과, 살펴볼 1892년 안동에서 기후제가 거행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 경상북도 일대에 가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가진이 1892년 6월 14일부터 거행한 안동에서의 기후제는 9제차로

11) 『承政院日記』 冊3022 高宗 29年 6月 24日.

12) 『高宗實錄』 卷 29, 高宗 29年 閏 6月 25日.

13) 『日記』는 薇陽 吳濟承(1877~1933)이 지은 131면 분량의 필사본 생활일기이다. 1891년 4월 17일부터 1895년 5월 16일까지 4년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기록형식은 날짜와 날씨를 기록하고 제례나 집안 행사, 그리고 왕래한 빈객이나 그날의 주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일기를 작성한 오제승의 자는 敬緝, 호는 미양, 본관은 咸陽이다. 謙齋 吳世潤의 손자이며, 柳必永의 문인이다. 1920년에 陶山書院 院任을 지내고, 그 해 가을엔 虎溪書院 院任을 지냈다.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영양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국학진흥원 일기 해제 참조).

14) 『日記』 ○(六)月初八日[甲午], 載陰載陽. 旱氣太甚. 人心沍沍. 以迎鳳臺之祭. 告于山神.

15) 『日記』 ○(六)月二十七日[癸丑], 尙無雨意. 旱氣日日尤甚. 禾粟盡枯. 田畝皆坼. 四野吉(【較】 枯)槁并起. 可謂殺年也.

16) 『日記』 ○(閏六月)初三日[己未], 午驟雨. 一月久旱之餘. 始雨. 苗勃然興起. 人心浹洽也.

거행되었다. 조선후기 중앙에서 거행한 기우제는 12제차를 지내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지방의 경우 어떤 곳에서 제를 올리는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비교적 융통성 있게 祭處를 정할 수 있었던 사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영험한 곳을 골라서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중앙에서 지낸 기우제는 두 차례 정비되었다. 첫 번째로 정비된 시기는 성종대로 기우제 9제차로 제정되었다.¹⁷⁾ 이것이 조선 중기까지 지속되다가, 다시 한 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수정되었다. 1704년(숙종 30)에 전국적인 가뭄이 있어서 각지에서는 기우제를 지냈고, 국왕이 宗廟와 先農壇에 나아가 비를 빌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자 당시 禮曹判書였던 閔鎭厚가 그동안의 기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우제의 순서를 제시하였다.¹⁸⁾ 결국 민진후의 건의에 따라 12제차로 제정되었다.¹⁹⁾

17)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宗廟·社稷·北郊·漢江·三角山·木覓山·風雲雷雨壇·雲祀壇에 제사한다. ② 太一과 雷聲普化天尊에 醺祭를 설행한다. ③ 한강 두 나무에서는 沈虎頭를 시행하며, 도교의 무리로 하여금 『龍王經』을 읽게 하고, 朴淵에서 침호두를 시행한다. ④ 경성의 各戶에서는 門에 제사하고 분향한다. ⑤ 慕華館 연못가에서 蜥蜴을 써서 기우한다. ⑥ 동방에는 청룡, 남방에는 적룡, 중앙에는 황룡, 서방에는 백룡, 북방에는 흑룡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낸다. ⑦ 楮子島에서 화룡제를 지낸다. ⑧ 북문을 열고 남문을 닫는다. ⑨ 북을 치지 않는다(『成宗實錄』 卷 44, 成宗 5年 閏 6月 10日).

18) 민진후는 기우제가 같은 장소에서 자주 거행하기 때문에 燔瀆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동시에 거행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지내지 못한다고 하였다(『祈雨祭謄錄』 冊3, 甲申年(1704, 肅宗 30) 5月 23日).

19)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각산, 목맥산, 한강에 3품관을 보낸다. ② 龍山江, 저자도에 宰臣을 보낸다. ③ 풍운뇌우단·산천단·우사단에 제신을 보낸다. ④ 북교에 제신을 보내고 사직에 重臣을 보낸다. ⑤ 종묘에 중신을 보낸다. ⑥ 삼각산·목맥산·한강에 近侍를 보내고 沈虎頭를 시행한다. ⑦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낸다. ⑧ 풍운뇌우단·산천단·우사단에 중신을 보낸다. ⑨ 북교에 중신을 보내고 모화관 연못가에 武官 嘉善大夫를 蜥蜴童子로 보내 기우하고, 여염에서는 屏柳를 행한다. ⑩ 대신을 보내 사직에 제사하고 경희루 연못가에 무관 가선대부를 석척동자로 보내 기우한다. ⑪ 대신을 종묘에 보내고, 무관 가선대부를 춘당대 연못가에 석척동자로 보내 기우하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옮긴다. ⑫ 五方土龍祭를 지내고,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冠岳·朴淵·禾積淵·渡迷津·辰巖에서 焚柴하던 것을 모두 本道에서 설행한다(『肅宗實錄』 卷39, 肅宗 30年 6月 26日).

중앙에서의 기우제는 이렇게 정비되었으나, 지방의 경우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따로 규정된 바가 없다. 이는 지방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중앙의 권위를 빌려 지낸 것이므로 그 절차는 중앙의 것에 맞추되 사정에 따라 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제처나 절차가 지방관의 융통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었다.

안동 지역의 祭處는 6월 14일에 社稷壇, 18일에는 關王廟, 20일에는 鶴駕山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22일에는 先農壇에서 지냈고, 24일에는 仙魚淵, 26일에는 嶺南山, 27일에 葛羅山에서 지냈으며 29일에는 照骨山에서 지냈고, 마지막으로 윤 6월 2일에는 太白山에서 지냈다. 이후 윤 6월 7일에 큰 비가 내림으로써 제를 멈추었다. 따라서 각각의 기우제는 1 ~ 2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중앙의 12제차 기우제처 및 1892년 안동의 기우제처와, 같은 해 오형묵이 지냈던 함안에서의 기우제처를 함께 표로 정리한 것이다.²⁰⁾

<표 1> 중앙[한양]·안동·함안 기우제의 제처 비교

	기우 12제차 제처	1892년 안동 기우제	1892년 함안 기우제 ²¹⁾
1차	三角山, 木覓山, 漢江	社稷壇	社稷壇
2차	龍山江, 楮子島	關王廟	餘航山, 龍淵壇
3차	風雲雷雨壇·山川壇·雩祀壇	鶴駕山	主勿津, 龍壇
4차	北郊, 社稷	先農壇	山足面, 碧寺壇
5차	宗廟	仙魚淵	餘航山 上峰
6차	三角山, 木覓山, 漢江	嶺南山	碧寺壇
7차	龍山江, 楮子島	葛羅山	社稷壇
8차	風雲雷雨壇·山川壇·雩	照骨山	餘航山, 龍壇

20) 오형묵(吳玄默, 1834 ~ ?)은 咸安郡守 시절 1892년 6월 2일부터 29일까지 총 15차례의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오용원, 앞의 논문).

	祀壇		
9차	北郊	太白山	主勿津
10차	社稷		碧寺壇
11차	宗廟		餘航山
12차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冠岳·朴淵·禾積淵·渡迷津·辰巖		臥龍江
13차			主山 別壇
14차			自怡山
15차			自怡潭

〈표1〉에서 중앙에서의 기우제의 절차를 살펴보면 처음에 三角山, 木覓山, 漢江에서 지내고, 마지막으로 종묘에서 제를 올리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6차부터 다시 앞에 지냈던 것과 거의 같은 절차의 과정을 반복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冠岳·朴淵·禾積淵·渡迷津·辰巖에서 추가로 제사를 거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1892년 6월 오형묵이 지냈던 함안에서의 기우제는 중앙과 비슷하게 1차에서 6차까지의 순서를 7차에서 12차까지 반복한 후,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추가로 3차를 다른 곳에서 지낸 것이 밝혀졌다.²²⁾ 이를 통해 함안에서의 기우제는 비교적 중앙의 것을 좇아 절차를 비슷하게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동에서 지냈던 기우제는 그 절차가 다르게 구성되었다. 안동에서는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지낸 제치는 없었으며, 영험 있는 곳을 찾아서 한 번씩만 지냈다.

두 지역에서 지낸 기우제 제처의 공통점을 들면, 첫 번째 제처가 社稷壇이라는 점이다. 사직단은 잘 알려져 있듯, 토지신인 社神과 곡물신인 稷神에게 제를 올리는 곳이다.

21) 오용원, 앞의 논문, 138쪽의 표 참조.

22) 오용원, 앞의 논문.

조선시대 州縣 社稷壇은 태종 즉위 무렵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설치의 목적은 고려 말까지 존속되었던 전래의 神에 대한 제례, 특히 山川에 대한 淫祀를 대치하기 위해서였다. 1406년 전국 주현에 사직단을 설립한 이후 鄉校에 관한 규정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사직단과 향교의 제례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는 제례의 祭主는 지방 수령을 맡았지만 이를 보좌하는 獻官들이 향교 관계자로 구성된 것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²³⁾ 1892년 안동에서의 기우제에서도 향교의 임원들이 현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²⁴⁾

따라서 지방에서 사직단은 국가에서 규정한 가장 권위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특히 가뭄이 발생하였을 때 社稷神에게 직접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되어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꼽혔을 것이다.

김봉진은 기존에 안동에서의 기우제를 지내는 곳은 네 군데로 정해져 있다고 하였는데, 학가산 · 갈라산 · 조골산 · 태백산이 그것이다.²⁵⁾ 이로 볼 때 안동에서는 안동부사가 기우제를 지내는 순서가 기존에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다음 기우제처를 정하는 방법은 기우제를 지낸 이후 장의 혹은 기우제를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이 김가진에게 다음 기우제를 어디서 지낼 것인지를 여쭙고, 그에 대해 김가진이 답변을 하면 그 곳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또 1892년 안동의 기우제가 갖는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김가진은 관왕묘에서 기우제를 지낸 이후 우연히 그의 아버지인 김응교가 안동부사로 있을 때[1853년] 기우제를 올린 기록을 보고 기우제의 순서를 아버지가 행한 순서를 따라 정했다고 하였다는 점이다.²⁶⁾

다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던 순서를 따라 김가진의 기우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제처인 社稷壇은 『永嘉誌』에 따르면 안동부 서

23) 장지연, 「조선시대 州縣 社稷壇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 『한국문화』 59, 2011, 6~15쪽.

24) 『祈雨日記』, 序文.

25) 『祈雨日記』, 六月十四日.

26) 『祈雨日記』, (六月)十九日.

쪽 2리 鄉射堂 뒤에 있다고 하였고, 단의 아래에는 位板廟가 있다고 하였다.²⁷⁾ 사직단은 법상동에 있었는데 김가진은 향교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그곳으로 출발하였다. 사직단에 도착한 후에는 제수 및 복장을 검열하고, 직접 축문을 지어 기우제를 지낼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였다.²⁸⁾

사직단 기우제는 비교적 절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장의가 階築의 오른편으로 올라가 동쪽을 향해 서고 손에 笏記를 든 채 차례대로 외친다. 다음으로 校生 한 사람이 앞에서 獻官을 인도하여 제단의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하고 祭主[김가진]는 제단 아래에서 직접 祭文을 읽는다. 그 다음에 제주가 교생 두 사람을 동·서쪽에 서도록 하고 獻官이 네 번 절할 때 홀기를 부르도록 하였다. 기우제가 끝나면 축문을 모두 불태워 땅에 묻고 물러난다.²⁹⁾

두 번째 기우제처는 關王廟인데, 관왕묘는 서악의 東臺에 위치하였다.³⁰⁾ 關羽를 모시는 관왕묘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흥미롭다. 조선에서 관왕묘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선조 31년부터 설립되었으며,³¹⁾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신앙으로 정착하면서 한양, 성주, 안동, 전주 등 전국에 확산되었다.³²⁾ 당시 안동 기우제에서 역시 관왕묘에 담긴 민간신앙적인 의미로 인해 제사를 지낼 곳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8일 辰時에 김가진은 법상동을 떠나 안동부 관아[永嘉館]으로

27) 『국역 영가지』, 안동군, 1991, 268쪽.

28) 『祈雨日記』, 六月十四日.

29) 『祈雨日記』, (六月)十七日.

30) 『국역 영가지』, 안동군, 1991, 273쪽.

31)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25일.

32) 조선에서 관왕묘에 대한 인식은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 임진왜란 직후에는 명에 대한 事大의 영향으로 국가에서도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으나 丙子胡亂을 겪고 난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격상되어 관왕묘가 명나라의 遺趾라는 점, 先王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점을 들어 국가제사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조정의 관심이 쇠퇴하면서 오히려 민간에서 관우신앙이 크게 자리 잡는 모습이 발견된다(남호현, 「조선시대 關王廟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가서 쯔을 받아 관왕묘로 행차하였다.³³⁾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이와 같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향과 祝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행위에는 중앙의 명을 따라서 지방관이 의례를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내려진 향과 축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의례에 중앙의 권위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³⁴⁾ 김가진 역시 모든 제를 지낼 때 중앙에서 받은 향과 축을 안동 관아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제를 올렸다.

관왕묘에 도착했을 때 붉은 달의 分光이 火星을 겹 찼 天變이 있어 시간을 조금 물렸다가 목욕재계 후 제를 올렸다. 다음 날 폭염이 지속되자 김봉진이 다음으로 제사 지낼 곳을 물었는데, 김가진은 안동부 관아에 비치되어 있던 〈祈雨冊子〉에 선친인 김응균이 직접 쓴 흔적이 남아있어, 계축년[1853]에 지냈던 기우제의 절차에 따라 鶴駕山에서 지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³⁵⁾

학가산은 下枷山이라고도 하는데 안동부의 서쪽 30리에 있다.³⁶⁾ 이번에도 역시 안동부 관아에서 향을 받아와서 행차하였고, 행차 중에 풍악을 울리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번의 제에는 廣興寺의 승려들의 賦役이 확인된다. 광흥사는 학가산의 남쪽에 있는 사찰인데,³⁷⁾ 김가진이 광흥사에 도착하자 승려들은 그를 맞이하였고, 제단으로 올라가는 동안의 여러 필요한 물품들은 물론 많은 인원의 식사까지 도맡았다.

김가진이 제단의 위치를 묻자, 승려들은 원래 애련사의 뒤쪽에 있었으나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國思峰에 따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김가진은 그 곳으로 제처를 결정하였다. 길이 험하고 추워서

33) 『祈雨日記』, (六月)十八日; 『祈雨日記』, (六月)十九日

34) 최선휘, 「3장 2절 山天祭를 통한 향촌통치정책」, 『조선후기 지방사족과 국가』, 2007, 225~256쪽.

35) 이에 따르면 김응균이 지냈던 기우제의 순서는 사직단-관왕묘-학가산-선농단의 순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봉진 편역·김위현 옮김, 『기우일기』, 안동문화원, 2010, 18쪽.)

36) 『국역 영가지』, 위의 책, 89쪽.

37) 『국역 영가지』, 위의 책, 335쪽.

올라가는 데 일행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발을 재촉해서 자정에 겨우 도착하여 시각에 맞추어 제를 지낼 수 있었다.³⁸⁾

6월 21일에는 향교에서 여독을 풀었다가 22일에 다음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장소는 先農壇이었다. 안동 지역의 선농단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영가지』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 그 위치를 비정하기 쉽지 않다.

선농단에 대한 내용은 증앙의 것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선농단은 풍년을 기원하며 농경을 관장하는 神農氏와 后稷氏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농경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에서 중요한 제사 대상이 되었다. 가뭄의 발생으로 농사를 짓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1892년 안동에서 선농단을 찾아 제사를 지낸 것은 농경의 신에게 직접 제를 올린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김가진은 학가산에서 돌아온 뒤, 몸이 회복되지 않고 병이 났으나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하였다. 당시에 안동의 선농단에는 제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가진은 이곳에 있었던 제방에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우제를 올렸다.³⁹⁾

여기까지가 김가진 부친의 기우제 기록에 의거해서 정해진 기우제처이며, 다음의 기우제처는 김가진이 스스로 결정한 기우제처이다. 선농단에서의 기우제를 마친 후, 김가진은 산에 제사를 지낸 뒤에는 반드시 물가에서 제를 올려야 한다며 다음 제처를 仙漁淵으로 결정하였다.

6월 24일 다시 안동부 관아로부터 향과 축을 가지고 와서 선어연으로 행차하였다.⁴⁰⁾ 선어연은 안동부의 동쪽 10여 리 소을마촌 서쪽 松項에 있었는데, 깊은 연못에는 龍이 사는 집이 있었다고 하여 용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으며 예부터 날이 가물면 비를 비는 제사가 치러졌다고 한다.⁴¹⁾ 하지만 김가진이 제를 올릴 때는 제단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8) 『祈雨日記』, (六月)二十一日

39) 『祈雨日記』, (六月)二十二日

40) 『祈雨日記』, (六月)二十四日

41) 『국역 영가지』, 위의 책, 120쪽.

『기우일기』에서도 선어연에 사는 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용이 날래고 사나워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였다고 해서 이름을 선어연이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기우제를 지낼 때 용과 관련된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확인된다. 중앙에서도 역시 〈龍王經〉을 읽게 하거나, 沈虎頭의 의례, 土龍을 만들어서 지내는 제사, 蜥蜴祈雨祭를 지내는 등, 용과 관련된 많은 제사를 지냈다. 전통시대에 용은 水神을 상징하여 祈雨와 크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⁴²⁾ 1892년 안동 기우제의 사례를 통해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기우제에서 용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어연에서의 기우제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頭民]이 함께 참석하였다. 김가진이 그들을 불러서 前例에 의거하여 神에게 祭物[物貨]를 바치라는 말을 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김가진이 꿇어앉아서 제를 올리는데 개구리가 제물에 뛰어 들자, 장의 김봉진은 개구리는 용왕의 졸개이므로 좋은 징조라고 답하였다. 날이 저물자 근처에 있는 慕洞精舍에서 숙박하였다. 김가진은 숙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현판을 써주기도 하였다.

6월 26일 여섯 번째 기우제치로는 嶺南山이 결정되었다. 영남산은 안동부 동북 1리쯤에 있고 안동의 主山이다.⁴³⁾ 산허리에 예부터 전해져오는 우물이 있는데 聖齋井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 우물은 날이 가물더라도 마르지 않고, 때때로 붉은 무지개가 뜨기도 한다고 전한다.⁴⁴⁾ 김가진은 이 날 기우제를 올리면서 지금껏 기우제를 지냈으나 여전히 가뭄이 그치지 않는 것을 탄복하였다.⁴⁵⁾

일곱 번째 기우제치는 葛蘿山이다.⁴⁶⁾ 이곳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

42) 최종성, 「용부림과 용부림꾼 : 용과 기우제」, 『민속학연구』6, 1999.

43) 『영가지』에는 ‘嶺南山’이라고 되어있다.

44) 『국역 영가지』, 위의 책, 87쪽.

45) 『祈雨日記』, (六月)二十六日.

46) 『祈雨日記』, (六月)二十七日.

영가지』에서는 文筆山이라고 하였는데, 그 위치는 안동부의 23리 쯤 있다고 전한다.⁴⁷⁾ 『기우일기』에서는 30여 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영가지』에 따르면 그곳에 예부터 기우단이 있었다고 하였다.⁴⁸⁾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작은 鐵馬 두 필을 세우고 그 아래에 靈所를 설치하였다.

주변인들이 김가진에게 갈라산 기우제를 마치고 다음으로 어디에서 기우제를 지낼 것인가 묻자 김가진은, 각각 기도처에 禮를 갖추어 지냈는데 예를 뛰어 넘어 태백산에서 제를 지내는 것은 산신령이 노할 수 있다고 하여 照骨山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에 따라 29일에 조골산으로 향했다.⁴⁹⁾ 조골산은 안동부 북쪽 40여리에 있는 천등산의 한 지맥인데, 약간 북쪽에 있다. 솟아있는 곳에 기우단이 있었다고 한다.⁵⁰⁾ 이곳 근처에 김가진의 조상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가진은 지금의 행차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만백성을 위한 것이니 사사롭게 성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우제를 마치고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이 김가진을 위해 술과 닭 등의 음식을 마련하였지만, 그는 소박하게 먹는다며[素食]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 기우제처는 태백산이다.⁵¹⁾ 각종 제물을 정비하고 윤 6월 3일에 출발하였는데 약간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소나기만 내렸기에 기우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냈다. 5일에 覺華寺에 이르러 잠시 쉬었으며 비 올 징조가 보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를 올렸다. 제례를 子時에 마치고 돼지머리를 잘라서 영험한 연못[靈泉]에 버리니 드디어 비가 내렸다. 이로써 아홉 차례의 제례를 모두 마쳤다.

다음 표는 1892년 안동 기우제의 과정을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한 것이다.

47) 『국역 영가지』, 위의 책, 88쪽; 『고전국역총서:신증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산천.

48) 『국역 영가지』, 위의 책, 88쪽.

49) 『祈雨日記』, 壬辰 六月二十九日 葛蘿山 祈雨祭文

50) 『국역 영가지』, 위의 책, 92쪽.

51) 『祈雨日記』, (閏六月)初二日; 『祈雨日記』, (閏六月)初四日; 『祈雨日記』, (閏六月)初七日

<표 2> 1892년 안동 기우제의 과정

순서	날짜	기우제처	내용
1차	6월 14일	사직단	천지신명께 기우제를 올릴 것을 고함.
2차	6월 18일	관왕묘	천변이 있어 시간을 물렸다가 제를 올림.
3차	6월 20일	학가산	광흥사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국사봉에서 제를 올림.
4차	6월 22일	선농단	제방에서 제를 올림.
5차	6월 24일	선어연	마을 사람들을 불러 제물을 받치게 함. 개구리가 뛰어들어 길조라 여김.
6차	6월 26일	영남산	하루 종일 꿇어앉아 제를 올림.
7차	6월 27일	갈라산	단소에 돌을 쌓고 작은 철마를 세우고 제를 올림.
8차	6월 29일	조골산	지방민들이 닭이나 술을 가져왔으나 물리침.
9차	윤 6월 2일	태백산	큰 비가 내림.

IV. 지방관의 역할과 의미

조선시대 지방관은 중앙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지방에 파견되어 각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 및 民事를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위를 빌려 재임하고 있는 지역에서 祭主로서 각종 의례들을 주관하였다. 특히 가뭄이라는 불가항력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기우제를 주관해야 했던 지방관에게는 자연재해[災異]를 해소하고 민심을 달리는 역할이 부여되었다.⁵²⁾

지방관의 일상은 주로 관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그가 지방관으로서 향촌에 있긴 하였지만, 鄉民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제를 올리는 기우제는 지방관이 관아에서 나와 향민과 직접 마주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당시 안동부사였

52) 오용원, 앞의 논문, 2009.

던 김가진 역시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김가진이 학가산 기우제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노리가[老嶺之街]에 이르렀을 때 백성 하나가 땅에 엎드린 채 冤事를 호소하였다. 김가진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마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고 관부로 돌아갔다.⁵³⁾ 이 행위는 마치 擊鎗처럼 보인다. 격쟁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국왕이 거동할 때를 포착하여 징이나 뿔과리를 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국왕에게 호소하는 일을 뜻한다.

상기하였듯 지방관은 지방에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관아에서 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백성이 그와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호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우제의 행차는 관아에만 있었던 지방관이 관아 밖으로 거동한다는 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정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김가진의 행차에서 일종의 격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행위는 향민들에게 국왕에게 직접 격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녔을 것이다.

선농단에서의 기우제를 지낼 때 군졸[兵校]들이 와서는 市值記를 아뢰어 가뭄으로 인해 물가가 뛰어 쌀을 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⁵⁴⁾ 그에 따르면 쌀값 한 말의 가격이 가장 높게는 3 ~ 4배 정도 올라 3량 8천 5푼 정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팔려는 쌀이 나오지 않아 여론이 나쁘다고 하였다. 그러자 김가진은 오히려 병교들에게 쌀 상인을 꾸짖었냐고 묻고는,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 테니 꾸짖지 말고 가격대로 주고 사도록 하였다. 쌀값이 올랐다는 군졸의 말에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쌀 상인들을 다그치지 말도록 한 것이다. 당시에 가뭄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쌀 상인들로 하여금 저렴한 쌀값을 강요했던 풍조가 있었음이 추측된다. 이에 대하여 김가진은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사정 속에서 쌀값을 올려 받는 民情을 고려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처럼 김가진은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행차하면서도 백성들의 억울

53) 『祈雨日記』, (六月)二十一日.

54) 『祈雨日記』, (六月)二十二日.

함을 들어주거나, 가뭄으로 인해 쌀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관의 역할이 단순히 지방에서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대면하고, 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등, 對民적인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災異가 발생하면 治者는 自責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재이가 해소되기를 빌었다. 이는 재이의 발생이 치자의 不德과 失策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이해한 天人感應論의 논리에 의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치자가 자책하는 행위는, 치자를 대표하는 국왕이 재이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행하는 다양한 의례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⁵⁵⁾ 지방관의 기우제는 중앙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가장 권위 있는 것이면서도 그 의미가 중앙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국왕의 대리자로서 지방관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지방관 역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다음은 학가산에 올린 祈雨祭文의 전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가진이 스스로 재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흡사 중앙에 있는 임금의 자신을 자책하여 求言敎書를 내리는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巨靈駕鶴	거대한 신령이 학을 타고 가셔서
盤穹作山	반궁에다 산을 만드셨네.
磅礴其氣	그 기운이 가득차서
凌騰草攀	하늘에 올라 부여잡을 수 없네.
曰德重厚	덕망이 중후하기도 하거니와
西鎮雄州	서진은 웅대한 고을이므로
蓄雲洩雨	구름을 쌓아 비를 내리면
功化斯周	공화가 여기에 두루 미치리라.

55) 전통시대에 국왕은 재이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반성하며 다양한 행위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避殿, 減膳, 求言敎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禳災輒應	재앙에 제사 지내면 응험이 있어
民蒙痲庥	백성들은 그 혜택을 받는다오.
嗟余不職	아, 내가 직임을 다하지 못하여
妖魃虐農	요망한 한발이 농사를 망치게 하니
四野龜圻	온 들판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一境魚囁	지역 내의 백성들 물고기마냥 목말라하네.
日急一日	하루가 다급하여져서
無妄歲功	금년의 농사는 가망이 없도다.
赤子何辜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으리오.
胥將溝壑	장차 구학에 빠져 텅굴겠으니
駿奔壇廟	모단으로 서둘러 달려왔으나
奈此誠薄	이 정성이 부족한 것을 어찌하리오.
維岳維靈	아, 산악의 신령이시여
咸願虔禱	모두의 소원을 경건히 기도합니다.
迺將圭璧	규벽도 가져와서 올렸고
迺潔粢稻	제수로 올린 쌀도 청결하거니와
仰高瞻巖	높이 고개 들어 바위를 바라보며
敬嗽非悃	보잘 것 없는 정성이지만 공경스레 바치오니
神其降監	신명은 이를 굽어 살피시고
克念大本	농사와 국가의 대본임을 생각하시어
興雲吐霧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여
一霏千里	한줄기 비로 천리를 적셔주소서.
云云物物	백성들마다 물건들 마다
莫匪爾賜	당신이 내려주심이 아닌 것이 없으리라. ⁵⁶⁾

반성의 표현은 모든 제처의 제문에서 등장한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사직단 기우제문에는 ‘내[長吏]가 치도를 잃은 탓이로다[長吏失事].’라고 표현하였으며,⁵⁷⁾ 태백산 기우제문에서는 ‘나의 分憂를 뒤돌아보니 부사의 직임을 못하였나이다[顧予分憂, 尸素字牧].⁵⁸⁾’과 같이 표현하였다.⁵⁹⁾ 또한 관왕묘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天變이 있자 시간을 물려서

56) 『祈雨日記』, 壬辰 六月二十一日 鶴駕山 祈雨祭文

57) 『祈雨日記』 壬辰 六月 十七日 安東社稷壇 祈雨祭文

58) 『祈雨日記』 壬辰 閏六月初六日 太白山 祈雨祭文

제를 올린 것 역시 재이가 겹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⁶⁰⁾ 이처럼 지방관은 단순히 기우제를 지내는 그 역할만을 대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역할은 물론 災異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의 역할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김가진은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백성들이 바친 음식은 물론 육류에 입을 대지 않았다. 그는 처음 사직단 기우제에서 자신이 술과 고기를 먹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고,⁶¹⁾ 이후에도 자신은 소박하게 먹는다며[素食] 거절하였는데,⁶²⁾ 이는 減膳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선은 말 그대로 ‘음식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天人感應論에 따라 治者が 재이가 발생하였을 때 반성의 의미로 행했던 것 의례 중 하나이다. 감선에는 재이를 하늘의 譴責으로 받아들여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⁶³⁾

김가진은 태백산에서의 기우제 이후에 비가 오자 기우제를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에 점심을 먹었는데, 이때,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⁶⁴⁾ 김봉진은 그제서야 김가진이 여태껏 고기를 왜 거절하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 김봉진은 ‘愛民憂國之衷情’이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김가진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가진은 기우제를 위해 고생한 모든 이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⁶⁵⁾ 윤 6월 10일에 映湖樓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기생 두 명을 불러 가야금을 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많은 술잔이 오갔으며 많

59) 分憂란, 군주의 근심 걱정을 나누어 맡는다는 뜻이다. 이 표현에서도 역시 중앙의 대리자로서 중앙의 임금과 함께 재이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0) 『祈雨日記』, (六月)十八日.

61) 『祈雨日記』, (六月)十四日.

62) 『祈雨日記』, 閏六月初一日.

63) 함규진, 「조선 역대 왕들의 감선(減膳): 그 정치적 함의」, 『한국학연구』34, 2010, 253쪽.

64) 『祈雨日記』, (閏六月)初四日.

65) 『祈雨日記』, (閏六月)十一日.

은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하였다. 또 각 처에서 기우제를 올릴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각 마을의 대표자들을 모래밭에 모아두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노래꾼을 불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김가진은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고생했던 이들과 향민들을 불러 모아 그간의 노고를 달래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처럼 지방관의 기우제는 단순히 그가 중앙의 대리자로서 기우제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自責의 임무까지도 함께 지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관의 기우제는 비가 온 이후에도 民心을 살피는 것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적인 부분까지 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김가진이 安東府使로 있을 적에 거행했던 1892년 안동 기우제를 『祈雨日記』의 기록에 따라 살펴보았다. 金嘉鎮은 안동부사에 부임하여 1892년 6월에 총 9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지냈다. 그는 안동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져 오는 〈祈雨冊子〉와 아버지 金應均의 기우제 기록에 따라 4차까지 지내고 그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다섯 차례를 추가로 지냈다.

1892년 안동 기우제는 사직단 · 관왕묘 · 학가산 · 선농단 · 선어연 · 영남산 · 갈라산 · 조골산 · 태백산 순서로 지냈다. 이곳은 모두 안동에서 예부터 영험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중앙에서의 기우제와 달리 지방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관의 결정에 따라 기우제처나 기우제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었다. 사직단 기우제는 중앙에서의 기우제와 그 절차를 비슷하게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학가산 기우제에서는 승려를 동반하였고 갈라산 기우제에서는 작은 鐵馬를 세워놓고 제를 올리는 등, 그 절차가 사뭇 달랐다.

『기우일기』는 1892년 안동에서 지냈던 기우제를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을 비롯하여 절차, 제기, 제물, 제문 등을 자세

히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지방관의 기우제는 단순히 기양의례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방관이 국왕의 대리자로서 권위 있는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속에는 民心을 안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지방관은 예부터 효과가 있다는 각 지역의 영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고, 지내는 동안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며 사회통합을 꾀하였다. 또한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는 모두를 초청하여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의 노고를 달래어 주고, 비의 즐거움을 鄉民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덧붙여 지방관은 治者의 입장, 즉 백성들을 보듬어야 하는 입장에서 災異의 책임을 직접 지고 반성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우제문의 내용에서 확인되며, 減膳하는 행위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해볼 수 있다.

1892년 안동에서 김가진이 지낸 기우제를 살펴보았을 때, 그가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의 행위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관이 지낸 기우제는 중앙의 권위를 빌려 재이를 해소하고, 지방관의 지위를 향촌사회에서 보여주는 행위이면서도, 향민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김가진의 안동부사 시절에 한정하여 그의 활동을 살폈으므로, 이러한 활동이 이후 김가진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조선후기 지방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기우제라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지방관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다양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지방관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한 다른 사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지방의례를 비롯하여 지방관의 활동에 대한 실체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記』(吳濟承) 『祈雨日記』 『永嘉誌』 『新增東國輿地勝覽』 『祈雨祭謄錄』 『解怪祭謄錄』 『國朝五禮儀』

2. 저서

김문식 외,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김봉진 편록·김위현 옮김, 『祈雨日記』, 안동문화원, 2010.
김위현, 『동농 김가진전』, 학민사, 200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농 김가진 전집』1·2, 선인, 2014
이 옥,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임장혁, 『기우제와 지역사회』, 민속원, 1999.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7.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3. 논문

권용란, 「조선시대 해괴제(解怪祭) 연구」, 『역사민속학』22, 2006.
금장태, 「祭天儀禮의 歷史的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4, 1992.
김재호, 「기우제의의 제의맥락과 기우권역」, 『역사민속학』18, 2004.
남금자, 「대한제국기 김가진의 충주지역 토지 소유와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2017.
남호현, 「조선시대 關王廟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박계홍, 「근세사회의 「기우제」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5, 1967.
오강원, 「春川府使 李玄錫과 春川府 社稷壇 祈雨祭文」, 『江原民俗學』13·14, 1998.
오용원, 「기우제의를 통해 본 영남 지방관의 일상과 대민의식」, 『영남학』 16, 2009.
이기태, 「마을기우제의 구조와 사회통합적 성격」, 『한국민속학』46, 2007.

- 이석규, 「朝鮮初期 祭天禮와 赦宥制 - 民心安定策과 관련하여-」, 『사학연구』54, 1997.
- 이 욱,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118, 2002.
- _____, 「기우제(祈雨祭), 천 리에 단비를 내리소서」, 『2018년도 장서각아카데미 역사문화강좌』, 2018.
- 장지연, 「조선시기 州縣 社稷壇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 『한국문화』59, 2011.
- _____, 「고려~조선 초 籍田 先農壇의 변화와 그 특징」, 『서울학연구』44, 2011.
- 최종성, 「국행기우제(國行祈雨祭)와 민간기우제(民間祈雨祭)의 비교연구 :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16, 1997.
- 최종성, 「국행 무당 기우제의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86, 1998.
- _____, 「용부림과 용부림꾼 : 용과 기우제」, 『민속학연구』6, 1999.

Abstract

The Practice and Implications of the Local Ritual for Rain[祈雨祭] in the Late Choseon Dynasty.

Ha, Seo-jeong

This article looked at Ritual for Rain[祈雨祭] by Kim Ga-jin(金嘉鎭, 1846~1922), local officer of Andong[安東府], in 1892. 『Gie-woo-ill-gie[祈雨日記, Record of Ritual for Rain at Andong in 1892]』 is a record written by Kim Bong-jin(金奉鎭, ?~?), who was a assistant at the time of the ritual. This recorded details the local Ritual for Rain in which local government officer were of the late Choseon Dynasty.

Drought was recognized as the most serious natural disaster in the traditional era when farming wa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Nation and regions used to come up with various solutions. Among them, Ritual for Rain is kind of ceremonial things.

Kim Ga-jin was appointed as local officer of Andong in 1891. When a big drought hit Andong in 1892, he held ritual for rain on nine times from June 14 to leap month June 2, 1892.

The Ritual for Rain in Andong have been practiced at place of good effects since ancient times.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ocal speciality and tradition that the local system could be achieved in various places compared to the central one. Kim Ga-jin took on not only ceremonial acts but also the role of self-criticism and the role

of caring for the People[民] during the Ritual.

In conclusion, Ritual for Rain by local officer in the late Choseon Dynasty, could performed a role in resolving the natural disaster and in caring for the People[民] at the same time.

keywords

Ritual for Rain, Ritual, Local system, Local officer, Drought, Kim Ga-jin, Andong

